

# 디지털 앞으로 한 걸음 더

## e-Book, 오디오북, 어린이 전자 도서 등 출판에 도입된 테크놀로지들

글\_허선

미국 도서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테크놀로지 발달 덕분에 책은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것이라는 고정 관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미 상용화된 e-Book은 시장에서 자리잡기 시작했고, 그동안 카세트나 CD로 들어왔던 오디오북은 아이포드, 휴대폰, MP3와 같은 디지털 장치를 통해 음악처럼 다운로드 받아 들을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자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전자음을 이용하거나 TV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전자적인 구성요소를 띤 책들의 판매 신장, 특히 유아시장에서의 성공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여러 출판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지금 미국출판계는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을 도서에 접목하면서 출판시장의 확대를 꾀하는 데 발 빠르게 앞장서고 있다.

### e-Book의 자리잡기

e-Book의 상용화는 초기 기대와는 달리 오랫동안 부진한 성적을 보였지만 닷컴 회사들의 거품이 빠지고 난 이후로 특히 교육부에서 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e-Book을 다루는 전자출판협회와 열린 eBook포럼의 대표 스티브 포타쉬에 의하면 치과 대학생 중 3분의 1과 25만 명 가량의 피닉스 대학교(원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학생들이 디지털 텍스트로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점차적으로 디지털 텍스트에 익숙한 세대들이 교육자와 학생이 되어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30년이 넘도록 교과서 배급을 해온 MBS교과서익스체인지는 온라인 소매점을 통해 판매하던 전자 교과서의 판매를 일반 대학서점에서도 판매하기 위해 전자 교과서 판매와 마케팅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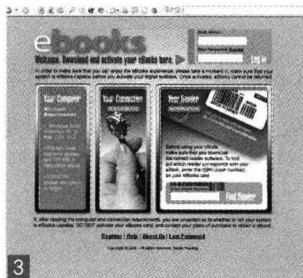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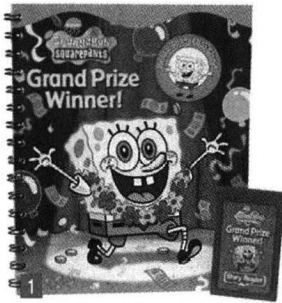
합을 목적으로 한 대학디지털교과서(Universal Digital Textbooks)를 설립하였다. 전자교과서의 대학서점 판매는 프린스턴 대학을 포함한 10개의 대학서점에서 시행되는데 5개의 출판사에서 20개의 과정을 담은 275개의 타이틀로 시작됐다. 이 타이틀들은 저작권보호 어도비 PDF 포맷으로 전송된다. 모든 문장은 검색이 가능하고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트 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인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읽어주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다. 중고서적에 대해 주어지는 25% 가량의 할인이 디지털 교과서에도 적용되어 33% 가량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기관이나 단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서 e-Book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는 760억 달러에 이르는 기관, 단체들의 교육시장에서 경비감소와 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e-Boo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고객들은 교육을 위해 써야 하는 수백 페이지의 종이서류를 e-Book으로 대체하고 싶어한다.

그렇다고 e-Book 비즈니스가 교육과 훈련에만 치우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일반도서 즉 소설, 비소설에 대한 e-Book 시장도 판매를 불려일키면서 천천히 성장하고 있다. 닷컴 시장이 붕괴하면서 출판사나 소비자의 지나친 기대로부터 자유스러워진 것이 e-Book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었기 때문이다. 전자출판의 전문가들도 앞으로는 퍼스널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이 e-Book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높아진 오디오북의 위상

제자리걸음을 멈추 못하는 일반도서 시장에 비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디지털 오디오북 시장은 미



1. P에서 발행하고 있는 스토리 리더 북  
2~4.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책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사이트들.

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디지털 테크놀로지와의 접목으로 그 입지를 넓히고 있다. 우선 미국의 독서 분위기를 살펴보면 점차 많은 미국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책을 읽을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9,700만을 넘는 사람들이 매일 일을 하기 위해 혼자 차를 운전하고 있고 교통정체는 해가 바뀔수록 그 수위가 높아져만 가고 있다. 여기에 운동, 정원 가꾸기, 요리 등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책을 볼 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오히려 무언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서 디지털 다운로드의 돌풍을 몰고 온 아이포드, 각종 첨단 기능을 가진 휴대폰, MP3 그리고 위성 라디오의 수요는 책도 음악처럼 다운로드로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그러자 많은 출판사들과 관련업계들은 디지털 다운로드를 포함한 오디오북 시장에 서둘러 진출하고 있다.

작년 타임워너 북그룹은 디지털 콘텐츠 전략을 포함하는 TWBG 디지털 미디어 부서를 구성하였다. 디지털 출판이란 이름아래 e-Book은 물론 오디오북, POD, 인터넷 다운로드, 포드캐스팅, 휴대폰에 디지털 전송 등 현재 진화하고 있는 기술과 더불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다. 미디어 베이도 마이크로소프트 MSN 음악서비스에서 미디어 베이 오디오북 스토어를 출범했다. MSN/SoundsGood 오디오북은 윈도우 PC에서 들을 수 있고, CD로 구울 수도 있으며 100개가 넘는 다양한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나 스마

트 폰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스칼래스틱 출판사의 연에 및 미디어를 담당하는 스칼래스틱 미디어 또한 오디오 그룹을 출범시켰다. 새로운 스칼래스틱 오디오 그룹은 이번 여름부터 오디오 타이틀을 출간하는데 CD 형태와 온라인 디지털 형태 모두 출시할 예정이다. 사이먼앤슈스터 오디오도 어린이 부서를 신설하여 올해 5~6개의 타이틀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한다.

### 어린이 전자 도서들의 성공

도서에 전자적 구성요소를 결합한 전자도서들이 출판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자음, 음악, 게임을 통해 대화식의 전자도서들이 대중들의 인기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8개의 타이틀로 전자도서를 처음 선보인 파라다이스 프레스는 올해 100권이 넘는 타이틀을 출시하였고, PI(Publication International)는 3년 전 이 브랜드를 출범한 이래로 200만 개의 스토리 리더 장치와 900만 권 이상의 스토리 리더 책을 판매하였다. PI는 TV에 연결해 읽을 수 있는 스토리 리더 비디오 플러스는 물론 DVD와 책을 함께 판매하는 DVD책을 출간하였다. 이러한 책들은 전통적인 판매망인 서점은 물론 대형마켓, 약국, 대형 체인 크래프트 샵 등 다양한 판매루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새로운 시장개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에서 미국의 출판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e-Book시장은 서서히 기지개를 피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술과 접목을 한 오디오북은 나날이 그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거기에 어린이 책에도 전자 기술이 도입되면서 더 이상 출판은 디지털 세상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잘 받아들이면서 성공한 예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네 출판도 디지털 강국이라는 국가적 배경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의 성공적인 결합을 기대해본다. [15]

### ●이 글을 쓴 사람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을 전공했고 2003년 미국에서 PMA Publishing university 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평화출판사와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서울 삼청동길 입구에서 갤러리진선www.galleryjinsun.com을 운영하고 있다.